

# 전천후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새마을

## PROJECTS OF CONSOLIDATING FARM FOUNDATION FOR ALL WEATHER AGRICULTURE AND NEW VILLAGE

(科技處主管 새마을 事業세미나要旨)

김 시 원  
Kim, Shi Won

지난날 우리 나라의 농업경영은 그 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농가의 소요경지는 분산 되어 있었으며,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농경이 비능률적이었을 뿐 아니라 용, 배수의 조절도 잘안되고 농도시설의 불비 등으로 합리적인 영농은 기대 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그러나 5.16혁명 이후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경지정리와 농업근대화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가더니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마킵내 새마을 운동의 거센 물결이 전국을 휩쓸게 되어 근대화작업은 가속화하고 농업의 면모는 하루하루 새로워져가고 있거니와 이제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의 종합적정비는 생산, 소득의 증대 등과 함께 농촌근대화의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은 산발적이며 근시안적인 농지개량사업이 아니다 풍요라고 원대한 농업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전천후 다목적 농업개발을 실현하여 기업화된 산업체제를 조성할 수 있는 농업기반의 정비는 물론 농촌생활의 환경정리까지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사업으로 전개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와같이 새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의 종합적인 정리의 방향을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환경정리와 세가지로 대별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 1. 종합적인 농지개량 사업

과거의 농지개량 사업은 그 대상지역이나 사업내용이 모두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것이어서 효과면에 있어

본학회이사·건국대학교교수·농학박사

도서 이에 상응하는 소규모의 것 밖에는 기대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크고 광역적인 행정의 관점에서 수리의 개선, 합리화, 도로의 정비는 물론, 기계화의촉진 농촌공업의 도입, 농촌공원의 설정, 관광농업의 건설, 전원도시(田園都市)의 건설, 공해의 제거 등 모든 토지이용 환경정비를 고려한 바탕 위에서 살기 좋은 새마을 생활환경의 조성과 안정된 농업경영의 기반을 구축할 광범위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장 합리적인땅과 물의 이용을 실현시켜 나가야 되겠다.

### 2. 농경지의 정리

#### 가. 논외 개량, 정비

예로부터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은 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개량 정비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더우기 농가 1호당 평균농작면적이 0.9ha에 불과한 형편이므로, 이것을 2배로 늘인다고 해도 2ha 미만으로서 외국과 비교 할때 극히 영세경영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지면적을 확장하려 하여도 우리의 실정으로는 그 한도가 있으므로, 결국 이 영세한 경작면적으로 외국농업에 대응하는 길은 높은 토지생산 밖에 있다. 즉 좁은 경작면적을 높은 수확으로 보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생산성의 향상에는 수리조건의 개량정비가 급선무이니, 관개, 배수가 자유로운 논을 만들어 밭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다.

## 나. 밭의 개량, 정비

종전에는 논외 경지정리만을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밭의 개량 정비도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밭은 경지정리의 면에서 볼 때 수원지(樹園地) (과수, 상전), 채소밭 (공예작물도 포함), 보통작물밭, 초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수원과 상전이 주가 되는 수원지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도의 환비와 작물의 집단화가 필요 하겠다.

채소밭은 영농의 기계화가 어렵고 도시주변에 밭이므로 농지의 집단화나 내구획화가 쉽지 않으며 외국 농산물의 영향을 별로 안받는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적지가 확대되고, 영농기술의 향상으로 생산경쟁도 심해지고 있어 농도의 정비와 환지 등에 의한 작물단지의 조성이 바람직 하다.

보통작물은 대부분 기계화가 용이하므로 경지정리를 하여 작물단지를 만들면 여전히 우리나라 밭작물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초지는 낙농의 상승세에 반하여 외국 사료와의 경쟁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계화하기 쉬우므로 대형 기계의 농율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초지로 개량, 정비하여 이를 극복 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 다. 농용지의 환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작면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경작면만 도운 다든지 협동영농 체제 등을 갖추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이 때 몇개의 농가를 도운다 하여도 농지가 분산되어 있으면 농업의 합리화를 기할 수 없다. 따라서 경지 정리를 계기로 나가고 들어간 곳을 교환하여 부락별로 농용지를 집단화하여 협업, 기계화의 길을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없이 대규모영농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되겠다.

## 3. 영농의 기계화

소득의 증대와 노력의 절감을 위하여는 영농의 기계화가 중요한 여건의 하나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거나와 정부에서는 이미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72년을 기점으로 1976년까지 총 158억원의 자금을 풀어 전국에 22천여대의 각종 농업기계를 보급시키는 사업에 착수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농업기계화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부대 조건과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

다.

## 가. 경지정리와 환지

농업을 기계화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려면 먼저 경지정리와 농용지의 환지가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나. 협업과 집단화

영농을 대규모화하고 기업화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는 영농의 집단화, 작물의 집단재배가 요망되며, 기계의 효율적 최대활용을 위해서는 협동작업이 필요하다.

## 다. 토지개량과 수리개선

토지의 개량은 관개, 배수가 간 되도록 하자는데 특적이 있다고 하겠는데, 특히 기계에 의한 제작업에는 토지의 습도를 조절하는 문제가 중요하므로 토지개량과 수리개선의 선행이 요망된다.

## 라. 기술교육과 수리시설

농업의 기계화로 새로운 기계가 보급되어도 이에 대한 조작기술이 없이는 충분한 활용이 어려우며, 또한 그 정비나 고장수리에 필요한시설이 없으면 유지, 관리에 지장이 많으므로 기술 교육과 수리시설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위에 열거한 문제점들 밖에도 작물의 품종 및 재배 기술을 기계화 영농에 알맞게 개량하는 문제 라든지, 농업기계화에 따르는 잉여노동력의 활용문제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난관을 합리적으로 타개 하면서 정부와 농민이 혼인일체가되어 노력한다면 농업의 기계화의 꿈은 조속히 실현 될 것이다.

## 4. 농촌환경의 정리

앞으로 농업경영이 대규모화되고 기계화 됨에 따라 농촌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의식주(衣食住)의 개선은 물론 각종 교육, 문화 보건시설이 갖추어져 도시에 못지 않는 복지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되어야 한다.

## 가. 주택지역의 개량 정비

주택지대내 도로의 개선, 상하수도등 위생시설, 새마을 회관등 공공시설의 건설 축사의이전, 학교, 의료 시설 상점 교통기관등의 이용이 편리하고 농경지로부터도 가까운 곳이어야 되겠으며 주택 자체로 위생적이

고 산화적인 안식처로 개선 되어야 할은 물론 이다.      겠다.

**나. 축사용지의 개량, 정비**

축사는 약취, 밀대 등 발생 수질오염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주택지대에서 격리하여 오물처리와 종합을 잘 각하히 새우는 것이 좋겠으며, 도로방이 편리하면 눈 지 안에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녹지, 공원, 묘지의 개량, 정비**

아름답고 산기 좋은 농촌은 만들려면 산촌의 유수지나 황폐한 땅을 녹지대나 자연공원으로 개량, 정비하여 환경미화에 힘써야 되겠고, 과거 농지나 밭에 산재하던 묘지도 녹지계획의 일부인 공동묘지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 공공시설용지의 개량, 정비**

농기계, 공동축사, 선과상 등의 농업협동 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학교, 새마을 회관등의 공공시설은 경지정리에 편리한 장소에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

이상과 같은 새마을 건설을 위한 생산기반 및 환경의 종합적 개량, 정비방안을 도약하여 도시하향 다음과 같다.

**경지정리와 농업근대화 계획의 기본구상**

